

교육감, 전교조냐 대학교수냐 교육관료냐

논설위원이 간다
지방선거 속으로



이흥재
주필

주목받지 못하는 교육 수장 선거

전국의 시·도 교육감 선거는 늘 보혁(保革) 대결로 치러졌다. 직선제가 되기 전까지는 보수 후보들이 우세했다. 그러나 교육감 선출 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뒤부터는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크게 약진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해 선출되던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된 것은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2007년 2월 부산시, 2008년에는 서울시, 그리고 201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교육감선거 직선제가 실시됐다. 직선제는 소수의 학교 운영위원회에 의해 독점됐던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줘 진정한 교육자치로 이어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직선제로 실시된 지난 2010년 선거에서 진보 진영은 전국 열일곱 곳의 시·도 교육감 중 여섯 곳을

선출 방식 직선제로 바뀐 이후부터 진보 세력 크게 약진 광주 이정선·최영태 후보 “장휘국 교육감 3선 저지는 내가” 무주공산 된 전남 고석규·오인성·장석용 치열한 3자 대결

차지해 세를 늘리더니, 2014년 선거 때는 두 배 정도까지 늘어난 열세 곳을 석권했다. 보수 성향 후보는 대구·대전·울산·경북에서만 당선됐다. 이로써 본격적인 진보 교육감 시대가 열렸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핵심 간부 출신이 당선된 곳은 광주를 비롯해 여덟 곳이었다. 보수가 발 디딜 틈이 없는 광주·전남의 경우 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진 2010년 선거에서 일찌감치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동반 당선됐다. 전교조 출신 평교사(장휘국)와 대학총장 출신 교수(장만채)에게 전·현직 교육감 등이 나란히 고배를 마신 것이다. ‘수능 성적 6년 연속 1위’의 신화를 썼던 당시 안순일 교육감도 재선의 고개를 넘지 못했다. 도교육청 출신 후배와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에 성공했던 후보(김장환)도 진보라는 타이틀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다.

진보 교육감 시대의 개막은 인기가 시들해진 이명박 정부의 보수 교육 권력에 대한 거부감이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당시 민노당을 후원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대량 징계가 유권자들의 동정표를 유발한 것도 진보 진영에는 오히려 전회

복이 되었다.

이때 당선된 장휘국 현 광주시 교육감은 이제 3선 도전에 나섰으며, 경선에서 실패했지만 장만채 교육감의 도지사 도전으로 무주공산이 된 전남도 교육감은 새로운 인물들이 임성(入城)을 노리고 있다. 출마자들의 면면을 보면 전교조 교사 출신, 대학 총장 등 대학 교수 출신, 그리고 교육 관료 출신 등 세 부류의 대결로 압축된다.

광주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장휘국 현 교육감이 최근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는데,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앞서가고 있다는 평이다. 장 예비후보는 지난 8년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광주 교육을 지켜왔다고 자평하며 3선을 자신한다.

하지만 이정선 전 광주교육대 총장도 일찌감치 다양한 교육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 후보는 ‘현장 중심’ 행보와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장 후보의 3선 저지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혁신 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된 최영태 전남대 교수가 강력한 대항마로 등장했다. 광주 지역 26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 혁신교육감 시민경선 추진위원회는 지난주 시민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 교수를 단일 후보로 결정했다.

시민경선에서 패한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의 정희근 전 광주시의원은 최 후보 측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현 장휘국 교육감은 추진위로부터 시민경선 참여를 제안받았으나 거절했고, 이정선 전 총장은 경선에 참여했다가 경선 룰 협의의 과정에서 이탈했다.

시민 경선 단일 후보 확정에 따라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장휘국·이정선·최영태 3자 대결로 굳어졌다. 두 명의 대학교수 출신과 한 명의 전교조 교사 출신이 대결하는 양상이지만, 이중 최 후보의 경우 시민사회 단체 대표(총사단 이사장)를 지내는 등 진보 성향을 띠고 있어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주공산(無主野山)의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고석규(목포대 전 총장), 오인성(전 나주교육장), 장석용(전 전교조 위원장) 예비후보가 임성을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 교사 출신과 대학총장 출신 그리고 교육 관료 출신이 각축을 벌이는 치열한 3자 대결 구도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선 후보의 정책 공간 국민성장 교육팀장으로 현 정부 교육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문 대통령 및 민주당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고 후보는 2014년 지방

선거 당시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의 상임선대본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오 후보는 전남에서 초등학교 교사부터 교감·교장·장학사·교육청까지 두루 역임한 점을 강조하면서 ‘전남 교육 현장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학교와 행정을 두루 경험한 오 예비후보는 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천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을 받는다.

전교조 전국위원장을 지낸 중등 해직 교사 출신의 장석용 후보는 전남 지역 380개 시민사회단체와 전남 도민들이 참여한 경선에서 뽑힌 ‘전남 민주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장 후보는 전교조 전국위원장 출신답게 개혁적인 이미지와 함께 ‘준비된 촛불 교육감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제 선거가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일반 유권자들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여전하다.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된 이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다 보니, 정당별 경선이 진행되는 단체장 선거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년 광주 2주 월, 전남 3주5천원 월 등 막대한 예산을 쓰는 곳이 바로 시도 교육청이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아예 달려 있느냐, 지역 교육 수장 선택의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도 내일처럼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무소속, 민주당 독주 막을까?

6·13 지방선거 표밭 점검

장흥군수

장흥군수 선거는 지난 4월초까지 10여 명이 난립했으나 4명으로 압축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 간 대결 구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병동 후보와 무소속 정중순·조재환·김상국 예비후보가 표밭을 누리고 있다. 민주당과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후보들이 높은 정당 지지율을 보이는 민주당 벽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박병동 후보는 중앙의 풍부한 인맥을 바탕으로 능력을 발휘, 소통하는 군정을 이끌겠다는 포부다. 정중순 예비후보는 농업 근무 30년 경력으로 깨끗한 행정을, 조재환 예비후보와 김상국 예비후보는 풍부한 행정 경력으로 준비된 장흥 전문가임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병동 후보는 서울과 장흥, 나주, 여수 등에서 경찰서장을 역임했다. 박 후보는 공약으로 “강한 여당 군수 큰 힘을 바탕으로 국비예산 확보에 최우선하겠다”

민주당 박병동, 무소속 정중순·조재환·김상국 4파전 바이오산단 활성화·해안관광도로 개설 등 공약 발표

고 말했다. 장흥읍에서 대덕~회진간 4차선 도로 확장과 장흥읍 중앙로 활성화, 친체된 바이오산단 분양으로 장흥경제를 살리겠다는 포부다. 장흥 유치에서 영암~금정I.C간 도로 개설로 장흥~서울간 직행고속 버스를 운행할 계획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 ▲부서·근무평정 100% 다면평가제 도입 ▲인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실질적 권한 부여로 군수의 제왕적 인사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다.

무소속 정중순 예비후보는 ‘구두담이, 머슴살이로 성장한 정남진 인동초’라며 빈농의 아들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웠다. 정 후보는 농업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장흥을 친환경 농·수·축산물 6차산업 메카로 육성시킨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는 장흥에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무소속 조재환 예비후보는 59년간 장흥

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장흥 토박이로, 37년 공직생활을 통해 준비된 ‘장흥 전문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조 후보는 장흥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다닌 지역민 자녀 40명을 매년 선발해 1인당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인재 육성을 최우선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흥읍 시가지와 서울의 명동거리와 광주의 충장로처럼 금요장터 운영으로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무소속 김상국 예비후보는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국무총리실 조사관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다. 김 후보는 각종 인·허가 투명화, 인사조정위 설치, 군수집무실 1층 이전, 여성공무원 사무관 승진기회 보장 등을 통해 공무원 청렴도를 크게 끌어올렸다고 공약했다. 또 바이오산단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농업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흥군수 후보

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이름(나이) 박병동(61)	김상국(63)	정중순(63)	조재환(58)
주요경력 전 장흥경찰서장	전 국무총리실 조사관	전 농협중앙회 상무	전 장흥군청 서기관
주요공약 ·장흥~서울 고속버스노선 실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망 구축 ·차세대인사제도 확대 ·근무평정 다면평가제 도입 ·인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군수 집무실 1층 이전 ·바이오산단 기업 유치 최우선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터미널·전통시장 무료 셔틀 운행 ·장흥 문학의 길 조성	·농수축산물 6차산업 메카 육성 ·바이오식품산업 기업 유치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해안 관광도로 개설 ·옛 장흥교도소 체험관 활용	·장흥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급 ·장흥읍에 금요장터 운영 ·고교까지 친환경 무상 급식 ·외인 생산공장 건립 ·구석기 유물 박물관 건립

2명 뽑는데 6명 출사표 ... 경쟁률 3대 1

전남도의원(장흥)

장흥은 전남도의원 선거가 뜨겁다. 2명을 선출하는데 6명이 출사표를 던져 경쟁률이 3대 1이다.

제1선거구(장흥읍·장동면·장평면·유치면·부산면)는 더불어민주당 사순문 후보와 민중당 박영태 후보, 무소속 이충식 예비후보 등 3파전이다.

민주당 사 후보는 통일부장관 보좌관 출신으로 당초 군수 선거에 도전하려다가 의회원으로 전환했다. 그는 농어촌 소득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당 박 후보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전남농정 개혁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했다.

무소속 이 후보는 전남지사 비서관과 전남도위원을 역임했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SOC확충 등 장흥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제2선거구(관산읍·대덕읍·용산면·안양면·회진면)도 민주당 곽태수 후보, 민주평화당 김광준 후보, 무소속 황정주 예비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의정 경험이 있다. 곽 후보는 장흥군의회 의장을, 평화당

장흥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사순문(61·민·전 통일부장관 보좌관 박영태(47·중·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이충식(53·무·전 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제2선거구	곽태수(55·민·전 장흥군의회 의장) 김광준(65·평·전 전남도의원) 황정주(65·무·전 장흥군의원)
민=더불어민주당, 평=민주평화당, 중=민중당, 무=무소속	

김 후보는 장흥군의회와 전남도위원을, 무소속 황 예비후보는 장흥군의회를 지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광주일보 창사66주년

순창군 귀농·귀촌 상담전화
063)650-5172~5174

순창군 귀농·귀촌 홈페이지
www.gosunchang.com

순창군 SUNCHANG

귀농·귀촌 최적지 순창
순창이 참 좋다!
순창 귀농은 더 좋다!